

굿모닝인천

APRIL 2022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40

4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2. 4. APRIL





클로드 모네(1840~1926), 양귀비밭, 1873, 유채, 50×65.3cm, 오르세 미술관

“아직도 그렇게 바쁘세요?
밖에 꽃이 가득 피었는데...”

들어보셨어요, 봄꽃도 피는 순서가 있다는 말? 시인의 관찰과 감성을 따라가볼까요. “맨 처음 마당가에 매화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기침을, 조팝나무가 튀밥처럼 하얗게, 앵두나무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사과나무가 따복 따복 꽃을 피우고, 탕자꽃도 질세라 핀다.” 안도현 시인의 시 ‘순서’처럼 봄은 질서를 유지하며 여기저기 ‘평평’ 밤낮없이 ‘팡팡’ 봄꽃을 피우고 있네요.

화가가 아내, 아이와 함께 꽃 나들이를 나왔네요. 언덕 위에 또 다른 여인과 아이도 보이고요. 화가는 어디 있냐고요? 찾아보세요. 참 화사하고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화면은 위로 하얀 구름이, 아래로 붉은 꽃밭이 비슷한 비율로 분할되어 있어요. 인물의 표정뿐 아니라 양귀비꽃과 뒤에 횡으로 늘어선 나무도 모두 빛에 번져 뭉그러져 있죠. 세밀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에 치중해 그렸네요.

클로드 모네는 1874년 드가, 르누아르, 세잔, 피사로 등과 전시회를 열었어요. 이 작품도 그의 다른 작품인 ‘인상, 해돋이’와 함께 출품되었죠. 현재의 모네, 참여 작가의 명성과 달리 당대 비평가와 관람객의 평가는 냉혹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뭔가 그리다 만 것처럼 보였죠. 이전의 그림은 채색과 구성에서 보다 치밀했거든요. 이들을 통칭해 부르던 ‘인상주의’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미술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빛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달리 보이는 인물과 사물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충실했어요. ‘수련’, ‘건초더미’, ‘루앙 대성당’ 등의 연작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모네는 말년까지 현장과 순간을 중시하며 주옥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아직도 그렇게 바쁘세요? 밖에 꽃이 가득 피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나와 봐요. 꽃이 필 때 꽃을 못 보고 꽃이 질 때 꽃을 보려 하지 말고요.

글 김성배 인천시립미술관팀장



표지사진 갑곶돈대에 핀 벚꽃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2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윤병철(소통기획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김성환·김범기·김영선·임학현·김대형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4월호, 이렇게 만들었어요

툭툭 터져 나오는 팝콘 같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팡팡 넘쳐나는 계절, <굿모닝인천> 4월호는 봄에 가면 좋을 트레킹 코스와 그 곁의 박물관을 커버스토리로 준비했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구죽화가 임경식, 시각장애 선생님인 김자영 씨를 만나 그들의 삶과 꿈에 귀 기울여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떠오른 인천 출신 박규희의 예술 세계와 고향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지성 화백과는 함께 간석동을 그려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 <굿모닝인천>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04 인천 미소
등산의 열정을 깨운
〈굿모닝인천〉 표지 외 | 42 이미지 뉴스
미세먼지 없는 인천시 만들기 |
|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화도진공원 | 43 시정 뉴스
깨끗한 인천 수돗물, 새 이름
‘인천하늘수’ 외 |
| 06 커버스토리
트레킹하고 박물관도 보고 | 48 의회 뉴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임기 마지막 임시회 열려 외 |
| 12 스케치에 비친 인천
간석동 | 50 컬러링 인천
월미도 |
| 18 코로나19 시대, 빛나는 인천
③ 잃어버린 여행 찾기, 동검도 | 52 인포 박스
치매 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외 |
| 22 장애인의 날 특집
임경식·김자영 인터뷰 | 55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⑯ 일본제58은행 인천지점 |
| 26 114년 전통 학교를 찾아서
② 인천여자고등학교 | 56 소소한 인천사
바다를 향한 터진 개, 신포동 외 |
| 30 그간 잘 지내셨나요?
기타리스트 박규희 | 57 仁生 사진관
그리운 내 고향 |
| 34 정책 만화
인천시 깃대종 | 58 인천의 아침
에네켄 |
| 36 움니버스 소설
아무도 울지 않는 밤
③ 깊은 밤을 날아서 | 59 포토 에세이
인천의 벚꽃 길 |
| 39 문화 줌인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 | |
| 40 문화 캘린더
화교들의 항일운동 외 | |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 가기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naver.com/incheontogi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등산의 열정을 깨운 〈굿모닝인천〉 표지

〈굿모닝인천〉 3월호 표지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달래 가득 핀 고려산을 보니 겨우내 참아온 등산의 열정이 확 살아나더군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날씨를 번명 삼아 집 안에서 꼼짝 않고 지냈는데 새로운 계절은 부지런히 우리 곁에 찾아 온 모양입니다. 신발장 깊숙이 넣어둔 등산화를 꺼내 신발 끈을 다시 묶어봅니다. 올봄, 인천 계양산부터 도전하겠습니다.

— 박철민 계양구 봉오대로

자랑스러운 올림픽 주역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덕분에 지난 2월은 참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최고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게다가 박장혁·김동욱 선수가 인천 연고 스포츠단 소속이라니!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 김수진 미추홀구 주안서로

교동초등학교 동문, 모두 모여라!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를 꼭 찾아 보는 독자입니다. 이번엔 어느 학교가 소개되었나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동초등학교 기사를 읽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 고등학교 단짝이 교동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친구에게 사진 찍어 보내주니 오랜만에 동창들에게 연락해 보겠다며 반색하더군요. 제 모교는 언제쯤 〈굿모닝인천〉에 실릴까요?

— 최정미 연수구 함박외로

출퇴근길 10년 지기, 〈굿모닝인천〉

적지 않은 나이에 재취업에 성공해 인천으로 출퇴근한 지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출퇴근길 전철 안에서 항상 함께해온 〈굿모닝인천〉, 덕분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구석구석 숨겨진 보석을 발견해 소개할 때마다 매번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겠습니다.

— 조한석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의 역사 속으로 ‘성금’

글 김은성(계양구 새별로)

화도진공원



올해로 회사 생활 15년째에 접어든다. 반평생을 새벽 출근에 야근까지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이 들으시면 유난스럽다 핀잔하실 것이 뻔하지만, 나에겐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사실 나는 몇 달 전부터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대는 중이다. 기쁨과 슬픔, 보람과 후회 같은 감정의 동요 없이 겉보기엔 편안하지만 속은 더없이 허무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기도 귀찮아 적당한 핑계를 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화도진공원에 가게 되었다. 예전에도 산책 겸 몇 번 들렸지만 이번엔 오랜만이라 그런지 모든 게 새로웠다. 기와지붕도 고풍스러웠고,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재현한 밀랍 인형의 모습도 재미있었다.

이전까지 나는 화도진이 조선 말기 개방을 요구하는 서양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문득,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에 지쳐가는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나는 더 지쳐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뒷걸음질을 치겠구나 싶었다. 100년도 넘는 옛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건, 그날의 선택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일 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간을 탓하지 말고 시간 속 나에게 집중하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얼 하고 싶은지 생각하리라. 그렇게 오늘의 나를, 오늘의 시간을 만들어 가리라. 화도진공원에서 나는 나를 다시 깨울 수 있었다.

산을 오르다

봄을 달리다

울 듯 말 듯 애태우던 봄. 진짜 봄이 왔다. ‘상춘 러닝’이라고 할까. 산과 들의 길 따라 꽃 따라 ‘인천의 봄’을 달려봤다. 그 곁에 오롯한 박물관도 찾아갔다. 이연수(40) ORC(One Running Crew) 러닝크루 운영자, 이미경(38) 직장인 러너, 전동석(35) 러닝 인플루언서가 동행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영선 포토 디렉터

삼국시대의 역사

계양산성 성곽길

해발 395m, 계양산은 인천 시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인천둘레길’의 첫 시작 점이기도 하다. 계산역 5번 출구를 나와 ‘주부토로’를 오르면, 계양산 초입에 이른다. 고개를 들면 산등성이 곳곳에 분홍 진달래 토핑이 흩뿌려져 있다. 꽃향기를 듬뿍 가슴에 안고 러닝 시작. 계양산성 성곽길을 오르다 보면 제법 숨이 차다. 하지만 계단 끝, 녹색 양탄자를 덮는 순간 ‘숨통이 탁~’ 트인다. 마치 하늘 위에 놓인 나만의 트랙 같다. 옛 선조들이 쌓은 성곽 아래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형형색색 등산객들을 쫓아 2시간 남짓, 목상동 솔밭을 들어서자 ‘피톤치드 샤워’를 한 듯 상쾌한 공기에 산행의 피곤함이 봄에 겨울눈 녹듯이 사라진다. 산을 한 바퀴 돌며 고려 시대 학자 이규보가 시를 짓던 자오당터와 초정지 등 역사를 탐색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계양산성박물관

국내 최초의 산성 전문 박물관이다. 계양산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성의 발달사는 물론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계양산성은 삼국 시대에 축조해 조선 시대까지 군사 요충지였다. 그 모든 역사의 숨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1
- 운영 시간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번호 032-450-8317~8



- 1. 계양산성. 맑게 갠 하늘과 이제 막 푸른빛을 띠기 시작한 새 잔디가 봄을 알린다
- 2. 목상동 솔밭. 하늘을 가릴 만큼 짙게 뾰족 뾰족 솟아 있는 소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온다
- 3. 숲속을 달리는 이미경·이연수·전동석 씨(왼쪽부터)



트레일 러닝 코스
7.29km

계양산성

무당골약수터

목상동 솔밭

피고개

징맏이고개

계양산장미원

계양산성박물관

선사시대의 붉은 빛깔

고려산 진달래길

매년 4월이면 탐스러운 진달래가 고려산 산허리부터 정상까지 수놓는다. 해발 436m에 펼쳐진 꽃잔치를 보러 온 시민들로 '진달래 반 사람 반'. 상상만 해도 심쿵하지만, 강화까지 온 만큼 역사의 땅을 차근차근 오르기로 한다. 고려산 북쪽 주능선의 끝자락,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사적 제137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53t의 유구한 역사를 품고 주인처럼 서서 우리를 맞는다. 남한 최대 규모다. 고려산 정상을 향해 한 시간쯤 올라 이윽고 백련사에 닿았다. 절 마당을 지나 뒤편 산길을 30~40분 오르면 고려산 정상. 코끝을 간질이는 은은한 향기, 하늘까지 닿을 듯 지천으로 깔린 진달래 물결이 엄하처럼 출렁인다. 저 멀리 굽이굽이 흐르는 산줄기와 은빛 물결이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인다.

1. 고려산은 4월 중순이면 산허리부터 정상까지 진달래로 붉게 물든다
2. 강화는 신의 땅이며 신화의 무대다. 그렇다면 진달래는 '하늘에서 날아온 선물' 아닐까
3. 고려산의 옛 이름은 오련산(五蓮山). 5색 꽃잎 중 흰 꽃이 떨어진 곳에 백련사를 세웠다고 한다

강화역사박물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고인돌 앞에 위치한 다. '단군 할아버지 시대'부터 선사 시대, 근현대까지 한민족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다. 토기를 만드는 모습, 돌칼로 고기를 썰는 모습 등 생활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1

🕒 운영 시간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번호 032-934-7887



트레일 러닝 코스
4km

강화 고인돌 유적

강화역사박물관

백련사

고려산 정상

하산



1

©인천관광공사



2

©인천관광공사



3

송도 파노라마의 눈맛

연수구 박물관길

연수구 박물관길은 ‘종합 트레킹 선물 세트’다. 박물관 주변으로 기념관과 사찰, 멋진 등산로까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넘쳐난다. 청량산(173m)은 인천시립박물관을 호위하듯 품고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앞마당엔 꼬마 열차인 ‘수인선 협궤열차’ 한 량이 전시돼 있다. 1969년 제작한 열차다. 인증샷 촬영 후 힘차게 산에 오른다. 흙길을 발끝으로 밟아들이고 산들거리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 심장이 요동친다. 10분쯤 걸었을까. ‘인천대교 전망대’에 닿는다. 서해를 헤치고 나아갈 듯한 배의 선두에 서면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와 바다까지 환상적 풍광이 펼쳐진다.

다음은 ‘노을 맛집’. 청량산 정상 전망대, 홍륜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명소다. 교각과 송도의 마천루 뒤로 새빨간 태양이 잠긴다. 홍륜사에서 길 따라 내려오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만난다. 한국전쟁 당시를 생생하게 재현해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1. 청량산 정상, 송도·옥련동, 인천대교 너머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최준근



2. 인천시립박물관 앞 수인선 협궤열차. 러닝 전,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맨다
3. 홍륜사. 인천의 여덟 번째 전통 사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년)
4.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1984년 세웠다

트레일 러닝 코스
2.2km

인천시립박물관

청량산 인천대교 전망대

청량산 정상 전망대

홍륜사

가천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인천의 유구한 역사, 문화 유산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52년 인천생 곰표 전>, <볼음도, 248명의 삶> 등 인천의 정체성과 스토리가 있는 전시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운영 시간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번호 032-440-6750





도시 산책자-간석동,
2021, 캔버스 위에 아크릴 릭, 40×90cm
콘크리트를 비집고 숨을 틔운 '작은 화분'.
재개발의 바람 속 강인한 생명력과 따스한
인간미를 상징한다

간석동을 가꾸다,
공방벽이 피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 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 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는 골목골목 생명이 피어나 는, 온정 가득한 동네 간석동. ‘도시 산책자’ 도지성 화백이 그렸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 디렉터

거닐수록 기분 좋은 동네

— 이 동네에선 모든 것이 지긋이 나이 들어간다. 길도 집도 사람도…. 간석동 빌라촌, 오래전 지은 다세대주택 사이사이엔 낡은 간판을 인 미용실과 세탁소, 구멍가게가 있고, 집 앞 공터엔 꽃과 상추, 고추가 같이 자란다. 별 좋은 날엔 동네 어르신들이 골목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커피를 든 젊은이들이 그사이를 뒤섞여 지난다. 낮잠을 즐기던 고양이는 인기척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기지개를 켜다 슬그머니 자리를 뜨곤 한다.

오늘 우리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산다. 그래서 평범하지만 잊혀가는, 이 모든 풍경에 자꾸만 마음이 간다. 도지성(64) 화백도 그렇다. “사람 사는 동네’ 같아서 좋아요. 아파트는 세상 사이에 높다란 담을 둔 성처럼 느껴지는데, 이 마을은 달라요. 한집 한 가족처럼 어울려 지낸답니다.” 하여 그는 오늘도 이 동네를 정성스레 화폭에 담는다. 1983년 선인중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을 때부터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부단히도 그려온 그다. 처음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건 갯벌을 메운 자리에 들어서는 거대한 공장 지대와 아파트 단지였다.

오늘, 그는 작은 화분을 그린다. 길모퉁이와 담장, 옥상 자투리땅,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있는 싱그럽지만 혼하디혼단, 어쩌면 보잘 것없기까지 한. 왜일까. 보듬고 함께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소중해서다. “콘크리트 틈을 비집고 피어나는 생명은 누군가 정성껏 새 숨을 틔운 것들입니다. 꽃이 피면 골목은 이웃을 초대하는 멋진 응접실이 되지요.” 그가 그리는 건, 그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아니다. 차가운 도시를 감싸 안는 36.5℃의 온기다.

도지성 화백,
시청 후문 앞에 있는 그의 화실에서



오늘, 우리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산다.
그래서 ‘사람 사는 동네’,
평범하지만 잊혀가는 풍경에
자꾸만 마음이 간다.



옥상에 오르면 오래된 골목과 낮은 집들이 펼쳐진다
'도시 산책자' 도지성은 그 길을 걷고, 그만의 세상을 연다

시청 후문 앞, 전망 좋은 방

— 2년 전, 교편을 놓고 오롯이 작가의 삶을 살면서 마련한 작업실도 이 동네에 있다. 시청 후문과 빌라촌 사이, 1980년대에 지은 오래된 건물. 소래포구 가까이 있는 집에서 수월하게 오갈 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점에 이 공간이 있었다. 인천문화예술회관과 미술 교사로 몸담았던 인천예술고등학교도 가까이에 있다.

자그마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세운 건물이다. 3년 전 인천시청이 중구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왔을 때다. 당시 이 근처에 빌딩이라 부를 만한 건물은 단 두 채뿐이었다. 이 건물엔 사진관이 있고, 카펫 가게가 있고, 목욕탕이 있었다. 숙직으로 긴 밤을 보낸 공무원들이 다음 날 여기 목욕탕에서 몸을 데우며 피곤함을 달래곤 했다.

5층 긴 복도 끄트머리에 작가의 화실이 있다. 남쪽으로 길게 난 수직 창에서 햇살이 가득 쏟아진다. 시청이 바로 앞이다. 창문 속 풍경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다. 이 너머로 긴 시간 신록이 돌아나는 아침이 열리고 낙엽 지는 오후가 펼쳐졌으리라. 옥상에 오르면 구불구불 골목길과 웅기종기 작은 집들이 한눈에 펼쳐진다. 햇살 좋은 날이면 초록빛 페인트칠을 한 세상에 빨래가 나부낀다. 바로 옆 재개발한 고층 아파트 단지는 마치 다른 시간을 사는 듯하다. 하지만 개발의 바람을 피해 나지막이 었드려 있던 이 동네도 언젠간 세상의 속도를 따를 것이다.



도시 산책자-상지부동산 앞,
2021, 캔버스 위에 아크릴 릭, 40×90cm
상지부동산 앞 길가에 있는 작은 정원.
1989년 이 동네, 이 자리로 온 부부가 정성껏 보듬고 있다

구불구불 골목길과 작은 집들,
햇살 좋은 날이면
옥상에 빨래가 나부낀다.
바로 옆 재개발한 고층 아파트 단지는
마치 다른 시간을 사는 듯하다.



간석동 빌라촌
바로 옆에 재개발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다(왼쪽)
상지부동산의 오복선·박상식 부부(가운데)

사람과 풍경 사이 '도시 산책자'

— 독일 철학자 해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무 목적 없이 거니는 사람을 '산책자'라고 말한다. 느리게 걷는 사람만이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도시 산책자' 도지성은 오늘도 걷고, 비밀을 발견하고, 감각을 열어 상상하며, 그만의 세상을 연다. 공기의 온도, 바람 냄새는 물론 기분 따라, 만나는 사람 따라 그 세상은 매일 다르다.

그가 다니는 골목, 어느 집 앞에 놓인 화분 속 식물은 언제나 싱그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빛바래고 생기를 잃어갔다. 이웃에게 물으니 꽃을 돌보는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다. '아, 화분 하나에도 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이제 생명을 보듬어 안는 이도 그의 캔버스 한편을 채워갈 것이다.

상지부동산 앞 길가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발길을 멈춘다. 작가의 작품 속 그 장소다. 겨울 너머 봄, 날이 아직 차다. 빈 화분들만 애타게 별을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아 그림처럼 빨강, 주황, 보랏빛 꽃망울이 돌아날 것이다. "좀 더 있다 오지 그랬어요. 보름은 지나야 잎이 돋고 꽃이 피는데... 5월, 봄이 무르익으면 온 동네가 화사하게 빛나요. 그때 다시 와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박상식(65), 오복선(65) 부부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다. 1989년에 유치원에 막 들어간 아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터를 내렸다. 딱 2년만 살고 이사 가려고 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아이의 삶을 흔들 수 없었다. 머물다 보니 동네가 깨끗하고, 교통이 편하고, 공원도 생기면서 점점 살기 좋아졌다. 떠날 이유가 없어졌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집 앞에 가꾼 정원,
꽃망울이 비닐 속에서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 장금순 씨와 아들 김종석 씨,
봄을 기다리는 꽃밭 앞에서

한 사람을 위해 가꾼 정원이,
온 동네 사람들 가슴에 기쁨이 차오르게 했다.
이웃의 마음에도 기꺼이 '꽃길'을 여는 사람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간석동 '꽃사랑' 사람들, 상지부동산 앞에서.
오복선·김혜순·김남심·안명자 씨(왼쪽부터)

— 골목골목 생명이 피어나는 마을엔 온정이 가득하다. 식물
을 보듬어 가꾸는 사람도 함께 바라보는 이도 마음이 자라난다. “보
는 사람마다 ‘예쁘다, 예쁘다’ 말을 건네니 꽃도 싱싱 자라고, 보는
마음도 고와지는 것 같아요. 꽃을 찾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착해요.”
마을엔 ‘꽃사랑’ 모임도 있다. 벌써 10년째, 꽃만큼이나 서로를 살뜰
히 아끼고 챙겨왔다. 회원 김남심(67), 김혜순(69), 안명자(68) 씨가
모처럼 부동산 사랑방에 모였다. 이삼십 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
고 살갑게 지낸 이웃사촌 사이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살다 보니 여직 머물게 됐어요. 이 동네가 좋
아서.” 만연니 김혜순 씨가 빙글 웃으며 말한다. 마을에 큰 건물이라
곤 파출소와 교회밖에 없던 시절, 사람들은 공터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어울려 놀았다. 저녁을 먹고 돛자리 위에 눕기라
도 하면 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났다. 그런 시절도 있었다.
돌아보면 오순도순 아이들 키우며 잘 살아왔다. 아랫집 눈치 볼 것
없이 집 안에서도 맘껏 뛰놀고,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며 술래잡기며
보물찾기를 하고 놀았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마을을 떠나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산다. 고향 집엔 지난 추억과 나이 든 부모만 남겨졌다.

골목 안,

2021, 캔버스 위에 이크릴 립과 파스텔, 91×171cm

예순이 넘은 아들이 노모를 위해, 집 앞에 기른 꽃들. 한 사람을 위한 정상이 온 동네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한다.
골목골목 피어나는 생명으로 마을에 행복이 흐른다



꽃사랑 사람들은 어느 집 누가 어떤 꽃을 기르는지 다 안다. 교회 앞 연립에 사는 조 씨는 남자인데 꽃을 참
좋아한다. 특히 난을 잘 키운다. 큰길로 올라가는 계단 작은 터엔 봄이면 모란이 피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만발한다. 빌라 지하에 사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금이야 옥이야 가꾸는 꽃밭이다. 어르신은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

예순이 넘은 아들 김종석(63) 씨는 어머니 장금순(86) 씨를 위해 꽃을 가꾼다. 배고픈 시절인데도 할아버지
가 농사를 안 짓고 십정동에서 꽃을 키웠다. 먹고사는 일로 평생 물리도록 꽃일을 만져왔지만, 어머니는 그래
도 꽃이 좋다. “문만 열어도 꽃 향기 흘러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이웃에 소문이 났다. 한 사
람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온 동네 사람들 가슴에 기쁨이 차오르게 했다.

“함께 보고 즐기면, 그게 행복이지요. 꽃 피는 날이 기다려져요.” 이웃의 마음에도 기꺼이 ‘꽃길’을 열어주는,
오래된 골목 낮은 집에 사는 사람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림 도지성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술 교사로, 작가로 평생 그림 안에서 살았다. 주로 인천의 도시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다. 갯벌을
메운 땅에 들어서는 공장지대나 아파트 등 인천의 산업화를 표현해 왔다. 최근엔 오래된 도시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화분에 주목
했다. 콘크리트 틈을 비집고 자라난 생명은 편안한 쉼과 따스한 인간미를 상징한다. 작가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조적 시선으
로 도시를 유유히 산책한다. 인천민족미술인협회의 대표와 인천시미술관추진위원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인천미술협회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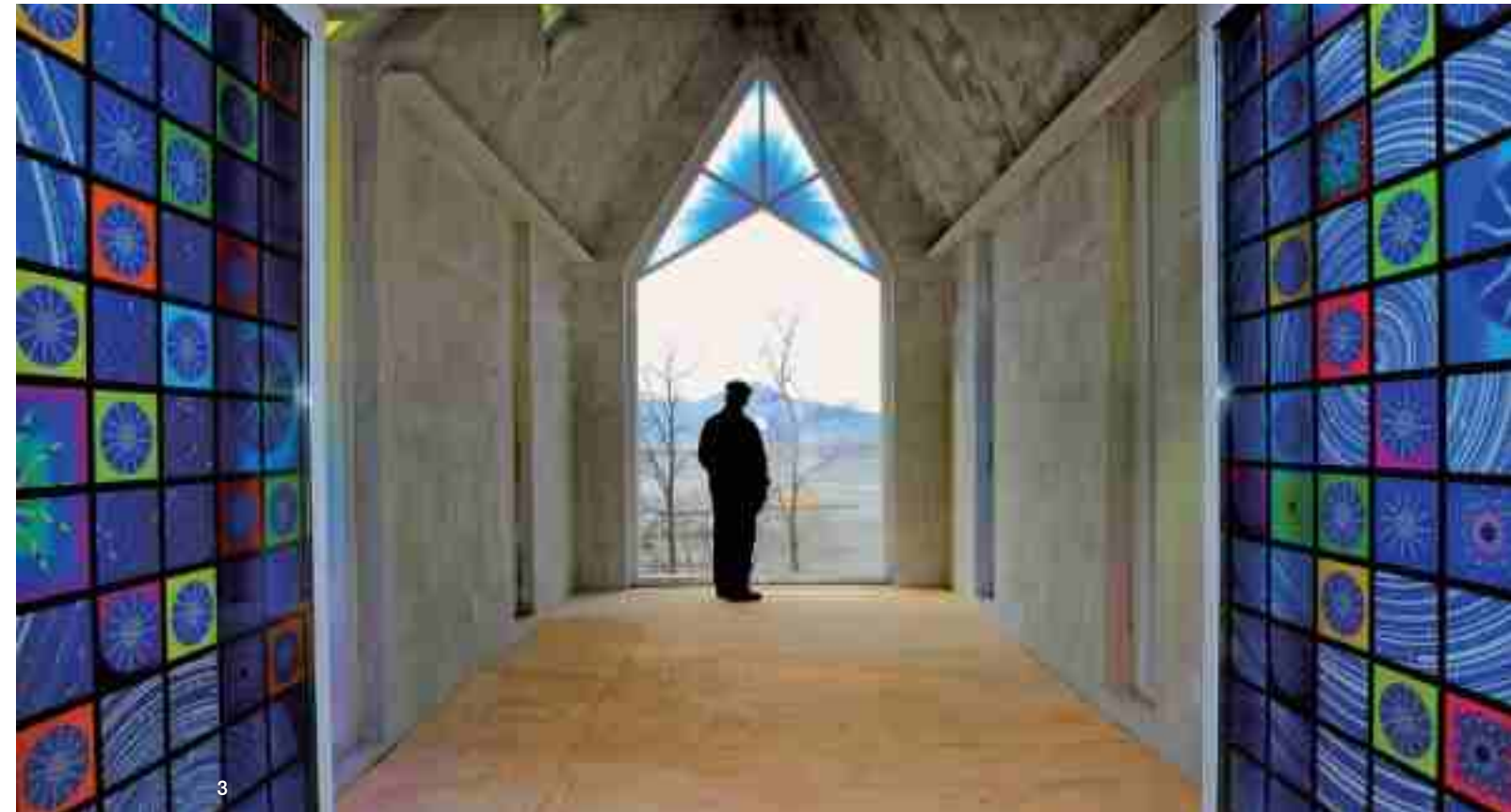
오롯이, 지금의 나



취재 영상 보기

미처 몰랐다. ‘그 겨울’이 가고 ‘이 봄’이 왔다는 사실을. 꽃 피면 봄맞이하던 평범한 일상이 그림다. 하물며 비행기 타고 떠나던 여행은 잊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 가깝고 소박하게, 일상도 여행처럼, 지금의 나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아름다운 인천 섬 그리고 바다, 동검도로 잠시 떠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 저널리스트



1. 채플 앞 바닷가
2. 답답하고 순한 빛의 동검도 바다
3. 채플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조광호 신부
4. 동검도 채플



섬, 작은 예배당

풍만하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떠올리면 안 된다. 섬으로 가는 길, 바다는 길편한 갯벌을 드러낸 채 저 멀리 물러나 있다. 순간 눈앞에서 거대한 갈대밭이 일렁인다. 봄날, 오후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다 잠시 멈춘다. 동검도는 강화 남단 치맛자락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섬 속의 섬, 섬 아닌 섬이다. 사람의 발길이 늘었지만 아직 순수하고 은밀하다. 그 섬, 바닷가에 누구나 품어 안는 작은 집이 있다. 동검도 채플^{chapel}, 지친 마음을 보듬어줄 여행의 종착지다. 가슴이 답답한 사람, 외로운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 이 안에서 조용히 생각하며 머물 수 있다. “모두 힘든 때이지요. 하나 이 시기가 주는 의미도 각별합니다. 이럴 땐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을 돌아보세요. 시련이 클수록 성찰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조광호(75) 신부는 모두를 위해 동검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집을 지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그 시간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모든 생명의 본질은 사랑, 나누는 것입니다.” 채플은 이달 20일, 봉헌식을 연다.

빛의 찬미

20여 년 전부터 ‘마음의 집’ 짓기를 꿈꿔왔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이 자리에서 꿈을 이루기로 마음먹었다. 나지막한 산과 들, 바다와 갯벌, 그 너머로 드리워진 마니산. 그 풍경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라도 머물다 가라고, 가만히 마음을 어루만진다.

“‘차경(借景)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머무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차경의 위로. 자연 때문에 이곳에 이끌렸지만, 풍경을 완성하는 건 예술 그리고 사람이다. 채플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테인드글라스 갤러리’가 문을 연다. 조 신부는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이자 독일 뉘른베르크 조형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활동을 해온 예술가다. 그가 평생 우리를 만지며 이룬 것을 쏟아부어 갤러리를 마련했다.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빛과 색채의 완벽한 예술. 스테인드글라스 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흔들리는 나뭇잎과 물결이 비추어 든다. 그 빛은 햇살의 농도와 기울기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다. 이 섬 작은 갤러리에 거대한 빛의 작품이 채워질 그날에 가슴 설렌다.



1



2



3

1. 동검도 끝자락, 바다의 시작점에 명상의 공간
2. 스테인드글라스 갤러리 벽면, 곧 찬란한 빛의 유리 예술 작품이 걸린다
3. 종교를 초월한 명상의 공간 안에서 조광호 신부

4. 수목을 퍼트린 듯한 동검도 갯벌
5. 자연의 빛이 스민, 스테인드글라스 갤러리 입구



4



5

봄이 오다

명상하는 공간은 단 23m²(약 7평)로 한 사람이 머물기 좋다. 작아서 아늑하고 편안하다.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압도적이다. 하늘과 땅, 바다를 모두 품고 있다. 그 한가운데 한라산과 백두산의 정기를 고스란히 전해 받은 한반도의 중심, 마니산이 보인다. 내 안의 나에서 시작해 긴 시간과 대자연이 빚어놓은 세상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멈춤... 다시 나를 만난다.

“두보(杜甫)의 시 ‘절구(絶句)’ 중에 ‘올봄도 보아하니 또 지나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싹이 돋고 꽃이 핀다고 봄이 아닙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의미가 있지요. 긴 겨울을 버텨온 사람만이 이 계절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괜찮다. 묵묵히 버티며 잘 살아냈다. 아픈 만큼, 강인하게 언 땅을 딛고 일어날 것이다. 이제 다시 봄이다.

‘해빗-어스(H.A.B.I.T.-U.S.)’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올해 관광 트렌드다. ‘Hashtags (개별화·다양화)’, ‘Anyone(누구와 함께라도)’, ‘Beyond Boundary(경계를 넘어)’, ‘In a Wink(즉흥여행)’, ‘Therapy(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Usual Unusual(일상이 된 비일상)’, ‘Special me(나의 특별한 순간)’. 일곱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강화 동검도 채플 여행은 어느 날 갑자기(In a Wink), 일상을 넘어(Usual Unusual)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Therapy) 여행이다.

동검도 채플 & 갤러리: 강화군 길상면 동검길 114

거친 파도 너머 ‘당신만의 바다’에 닿기를

청춘은 아프다. 장애가 있는 청춘은 더 많이 아프다.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별적 시선을 던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삶의 거친 파도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을 만났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대형 자유사진가



입으로 꿈을 그리는 화가, 임경식 씨.
전국에 스무 명 뿐인 세계구축화가협회 회원이다

칠흑같은 어둠의 끝, 어머니

구축화가 임경식(45) 씨의 화실. 화가는 입에 문 기다란 붓 끝에 팔레트의 붉은 물감을 툇툇 찍는다. 붓을 문 입술에 꽂 힘을 주어 캔버스에 ‘붉은 점 하나 콕’. 그러기를 수십 번. 어항을 탈출해 날아오른 금붕어의 비늘 하나가 완성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1997년 가을밤, 체육 교사를 꿈꾸던 스무 살 청년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다. 절망과 분노가 오랫동안 야생동물의 발톱처럼 그를 할퀴었다. 발버둥 쳤지만 마비된 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13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세상과 단절한 채.” 경제적 부담, 돌봄, 그를 지켜내는 일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다. 이미 4년 전 뇌졸중으로 장애를 얻은 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다 큰’ 아들을 수발했다. “어머니가 한없이 불쌍하고 처량해 보였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죽여달라고.” 그런 아들에게 돌아온 말은 “사랑해, 내 아들.”

거북이, 하늘을 날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커튼을 열어달라고 했다. 열은 햇살 아래 먼지 쌓인 책상, 연필, 옷걸이… 모두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필을 입에 물고 뽀뽀뽀뽀 아무거나 그렸다. 그림을 그리며 생체기 난 마음 한가운데 새 살이 돋았다. 하루에 8~9시간씩 그림에 몰두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지 1년 만에 구축화가 초대전에 그림 한 점을 걸었다. ‘잘 걸 어왔구나.’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속절없는 시간 앞에 30대 중반이 된 그는 비로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됐다. 몸은 휠체어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림은 자유로운 세상으로 한없이 나아갔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도 ‘화가 아들’을 뵈다며 ‘그림 조수’를 자처했다.

그의 그림에 세상이 반응했다. 2013년 여름, 미추홀도서관 초대로 첫 개인전을 열게 됐다. 가장 넓은 벽에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린 ‘천국 가는 길’을 걸었다. 하늘나라에서 그를 지켜볼 어머니를 위해.

요즘엔 거북이를 주로 그린다. “조금 느려도 거북이처럼 이 길을 꾸준히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제 그림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희망의 깃발을 발견하길 바라봅니다.” 바퀴를 부드럽게 밀며 다가오는 그의 휠체어 뒤에 파란색 깃발이 펄럭이는 것 같았다.

속절없는 시간 앞에 30대 중반이 된 그는
비로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됐다
몸은 휠체어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림은 자유로운 세상으로 한없이 나아갔다.



물고기와 거북이가 자유롭게 유행하는 파란 세상(위)
그의 마음을 캔버스에 옮겨주는 화구들(아래)



‘화가 아들’과
백발의 ‘그림 조수’
아버지 임태준(78) 씨

교단에 선 시각장애 선생님

햇살 좋은 봄날, 인천시민爰집에서 김자영(29) 씨를 만났다. 첼로를 켜는 그의 어깨 위 머리칼이 봄바람처럼 살랑거린다. 고운 선율을 실은 봄바람에 앞마당의 화초들도 산들산들 춤을 췄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기꺼이 ‘첼로 버스킹’을 해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요”라며 씩씩하게 웃는다. 시종일관 환한 미소를 짓는 그는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특수학교 음악 교사다. 2018년 개교한 공립특수학교 ‘인천청인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 씨의 시력은 학생들 윤곽만 겨우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럼에도 그는 정제된 언어와 빛이 없는 세상에서도 치유와 배움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 봄·여름·가을·겨울이 그려지잖아요. 말로 표현할 때보다 더 선명하게. 음악을 통해 충분히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배울 수 있어요.”



*‘디딤돌’보다 ‘걸림돌’이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흐르기를.
자주 넘어지고 조금 느려도,
그만의 바다에 닿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첼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김자영 씨(왼쪽)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인천시민爰집 앞마당에서(오른쪽)



음악 얘기를 할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꿈처럼 음악처럼, 나답게

“행복한 기억이 많아요. 합창대회나 축제 때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좋았어요. 첼로, 플루트, 피아노… 오케스트라 악기는 거의 다룰 줄 알고, 장구를 좋아해서 사물놀이도 하고요.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절대음감을 가진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곡을 듣고 통째로 외워 연주했다. 음악 얘기를 하는 그녀의 눈이 봄 햇살처럼 반짝였다.

중학교 2학년 겨울, 그날도 지금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마림바 수업을 받았다. “눈이 안 보이는 너를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미안해.” 수업 후 선생님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집에 오는 길, 찬 바람에 뺨이 얼고 눈물이 배어 나왔다. “꽤 여러 번 ‘장애가 왜 서럽고 불편해야 하나’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딤돌보다 걸림돌이 많았지만, 꿈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그녀는 꿈을 이뤘다. 유튜브 채널(뭉자의 Music Of Dream)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백발 할머니가 돼서도 아이들과 음악을 할 거예요.’ 청년 김자영. 그의 눈에서 또 한 번 반짝 빛이 난다.

우리 시는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을 모집·창단한다. 현악부·관악부·피아노·타악기 4개 분야 20명의 단원이 ‘희망의 포문’을 연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서 빛나는 열정과 재능을 가진 음악인들이 대거 지원했으며 4월 11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문의: 인정재단 032-574-0250(내선 409), 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3

기본을 바로 세우다 즐거운 배움터, 행복한 꿈터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하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스물세 번째 등갓길을 따라 연수구 연수동으로 발길을 옮긴다. 교문에서부터 학생들의 밝은 웃음이 흘러넘치는 곳, 하하호호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학생 무리에서 유독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3학년 우현진(18), 2학년 박서현(17), 1학년 유은재(16) 학생을 만났다. 세 학생과 학교 곳곳을 돌아보며 봄날의 오후를 함께했다.

글 김지은 자유기고가 | 사진 김범기 자유사진가



인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서현, 3학년 우현진, 1학년 유은재 학생(왼쪽부터)

114년 전통, 당당한 발자취

인천여자고등학교(이하 인천여고)의 시작은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교육이 막 태동하던 시기, 인천여고는 인천 최초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로 114년에 이른다. 2022년 2월 109회 졸업생 270명이 배출되었으며, 지금까지 3만 3,000명이 넘는 학생이 인천여고를 졸업했다. 명실공히 인천을 대표하는 여자고등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인천여고의 발자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책무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설고등학교도 마련되어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1976년 개교했으며, 올해 47회 입학생을 맞이했다. 이곳은 고등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어르신이나 일부 여건상 고등학교 정규교육을 받기 어려운 스포츠 선수들이 재학하고 있다. 평소에는 방송수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2주에 한 번 일요일에 등교해 출석수업으로 교육을 이어간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교실 중 일부는 인천여고 학생과 방송통신고 학생이 함께 사용한다. ‘따로 또 같이’ 배움의 소중한 가치와 경험을 이어가는 것.

“같은 교실을 사용해도 방송통신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 같이 1학년 학생이니까 나이는 달라도 모두 친구인 거죠.(웃음)”

유은재 학생은 인천여고 친구와 선배가 많아 좋으며 미소를 짓는다. 사실 유은재 학생은 적극적으로 인천여고 입학 희망했고, 그 바람을 이루었다. 인천여고는 인천의

공립여자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과학 중점 학교로 선정되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유은재 학생에게 이보다 좋은 학교는 없었다. 인천여고의 자랑 중 하나는 과학 중점 과정과 함께 인문융합 과정, 언론미디어 과정, 국제통상 과정이 고루 조화를 이루며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과정과 교육 공간, 전방위 혁신으로

“인천여고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다른 분야와 접목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인재가 필요한데요, 인천여고는 이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혁신형 자율학교로 교사들이 학생과 소통하며 더 나은 교육 과정을 모색하고 있지요.”

김화연(57) 교장은 인천여고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올해 신규 교장으로 부임해 의욕이 높은 데다가 그 역시 인천여고 출신이기 때문이다. 70회 졸업생으로, 1980년 3월에 입학해 1983년 2월에 졸업했다. 오래전 학생으로 머물던 학교를 다시 찾은 소감을 묻자 간결하지만 힘이 넘치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천여고인이라는 자부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10대 소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인천여고인으로 살 겁니다.”



인천여고 학생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오정숙 작가의 조각 작품

인천여고 출신인 김화연 교장과 학생들이 교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인천여고는 1998년 연수구 연수동으로 교사를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 교장이 학창 시절을 보낸 교정은 지금의 교정이 아니다. 1998년 중구 전동에서 연수구 연수동으로 교사를 이전한 것. 이전 당시만 해도 신축 교사는 최첨단이었는데 벌써 2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 손볼 데가 많아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여고는 교육 공간에도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고교학점제로 변화를 앞둔 만큼 이를 대비해 기존처럼 몇 학년 몇 반 교실이 아니라 과학실험교실 같은 교과 교실로 변신하고 있는 것. 또 도서관도 많은 장서로 빼곡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독서실도 스터디 카페로 요즘 학생들의 취향과 정서를 반영해 하나씩 바뀌어나가고 있다.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

“옆집 언니도 인천여고 출신이고 아래층 사는 이웃도 인천여고 출신이고, 학교 근처에 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천여고를 알게 되었어요. 인천의 여자고등학교는 인천여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입학하고 나니 인천여고가 이렇게 좋은 학교구나, 새삼 실감하고 감동하고 있어요. 우선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꿈을 가져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은 상투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긍정하고 공감하게 돼요. 제가 인천여고에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랑 분명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우현진 학생에게 인천여고에서 맞이한 그동안의 시간은 각별하고 소중하다. 2020년 고등학생이라는, 학창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는데 덜컥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자유롭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개방형 공간의 독서실(위)
여러 가지 실험과 실습을 진행하는 다목적실(아래)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읽는 2학년 박서현, 3학년 우현진, 1학년 유은재 학생(왼쪽부터)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되는 인천여고(위)
개교 100주년 기념비(아래)

학교에 간 날보다 가지 않은 날이 더 많은, 혼란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음에도 그를 잡아준 건 바로 선생님들이었다. 물리적 거리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참 좋으세요. 이걸 학교 장점이라고 말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학생들 말에 늘 귀 기울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창 예민한 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박힐 수도 있고 평생 잊히지 않는 말로 기억될 수도 있다. 박서현

학생에게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

인천여고 구성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학생들은 인천여고라서 좋다고, 교사들은 인천여고니까 달라야 한다고, 졸업생들은 인천여고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학교는 단지 교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이끄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인천여고는 이 엄중한 책임을 실천하며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에 인천여고 구성원은 모두 하루하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성실히 써 내려가고 있다.



인천여고가 낳은 스타



배우 이보영(86회 졸업생)

2000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진 출신으로 2002년 CF를 통해 연예계에 입문했다. 안정적인 호소력 짙은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12~2013년 방영된 KBS 드라마 <내 딸 서영이>는 47%의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며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최근작은 2021년 tvN 드라마 <마인>으로 주인공 서희수를 연기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기타를 처음 잡은 건 네 살 때였다. 엄마가 취미로 통기던 기타 소리를 들으며 자란 규희는 말을 곧잘 하게 되자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아이의 생떼를 견디지 못한 엄마가 규희의 손을 잡고 데려간 곳은 석바위에 있던 ‘리여석음악학원’이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칠 수 있는 기타는 없어요.” 학원에선 강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6개월 동안 고심한 끝에 아동용 기타를 구한 엄마가 학원을 다시 찾아갔다.

아이와 기타를 번갈아 바라보던 리여석 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가 기타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그렇게 리여석(82), 조예진(65) 선생으로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어언 33년. 인천 출신 기타리스트 박규희(37)는 평단과 대중이 함께 인정하는 세계적 기타리스트로 성장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만큼이나 풍성하고 섬세한 박규희의 연주를 바라보는 많은 음악 전문가들은 그에게 ‘최고’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Guitarist



박규희는 ‘작지만 큰 손’으로 세계 최고의 기타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Kyuhee Park

네 살 때 기타 잡아 33년 만에 세계적 기타리스트로 성장

그의 첫 스승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박규희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어린아이가 하루 서너 시간씩 기타를 쳤어요. 집중력과 관찰력도 매우 뛰어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알람브라궁전의 추억’을 연주할 정도였으니까.”

박규희에게 기타는 신체의 일부분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하루 4시간, 중학생 때 6시간, 유학 시절엔 하루 13시간씩 기타를 끌어안고 살았으니.

리여석 지휘자의 수제자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박규희는 서울 예원학교를 거쳐 도쿄음대 기타과에 진학한다.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 중학생 최초 기타 독주회, 일본의 쟁쟁한 성인 기타리스트들과 겨룬 규슈(九州) 기타 콩쿠르 우승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 경력을 쌓은 그였다.

“기타만 끌어안으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뿐이었죠.”

리여석, 피에리 두 스승에게 사사한 음악성과 겸손함

도쿄음대 1학년 재학 중이던 그가 돌연 빈(Vienna) 국립 음대로 유학을 떠난 것은 기타 본고장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다. 쉽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옳았다. 빈 국립음대에서 세계적인 기타 거장 알바로 피에리 ^{Álvaro Pierri} 교수를 두 번째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피아졸라가 협주를 요청할 정도로 유명한 피에리 교수는 동양에서 온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의 연주는 마치 동양의 수를 놓는 것처럼 섬세하구나. 감성이 충만하고 내면은 심연처럼 깊어.” 다른 사람들은 손이 작다느니 힘이 없다느니 비판하기 일췌였지만 피에리는 언제나 칭찬을 건넸다. 첫 번째 스승 리여석 또한 손이 작은 박규희의 신체적 조건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가들의 공통점은 그런 거였다. 단점을 지적해 주눅 들게 하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해 마음껏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칭찬 말이다. 물론 박규희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지만.



박규희와 스승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카페 파랑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너의 위에 반드시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으니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Classic guitar



열 손가락의 오케스트라 박규희의 연주 모습

빈 국립음대 수석 졸업, 깨달음을 찾아 걸어가는 음악 철학의 길

빈 국립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정점에 올랐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졸업한 지 2년 만에 스페인 알리칸테Alicante 음악원 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그는 2019년엔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리여석 선생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의 위에 반드시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으니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배움은 제게 충전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박규희의 궁극적 목적은 음악을 통해 철학에 다가서는 것이다. 음악은 인간에게 무엇이며 나의 연주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철학적 깨달음을 위해 그는 오늘도 기타 줄에 부드럽고 유연한 손가락을 얹는다.

다른 많은 연주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한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한 박규희는 오는 5월부터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5월 스페인 공연에 이어 6월 한국, 7·8월 일본, 가을인 10월엔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창단 50주년 연주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주하지 않을 때면 사진 촬영과 독서를 즐기는 박규희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타 교본을 쓰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클래식기타의 대중화는 모자란 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제가 익히고 경험한 음악 세계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클래식기타의 대중화는 모자란 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제가 익히고 경험한
음악 세계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깃대종을
아시나요?



③ 깊은 밤을 날아서

글 안보윤

어휴, 진짜 못생겼네. 동현은 저도 모르게 큰소리를 냈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고양이를 향해서였다. 몸통에 검은 얼룩이 듬성듬성 찍힌 고양이는 머리통이 깜짝 놀랄 만큼 컸다. 찹쌀떡 같은 걸 무심코 밟았을 때처럼 얼굴이 판판하고 코가 납작했다.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던 편의점 직원이 동현을 돌아보았다. 못났다, 참 못났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동현은 빠르게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사실 못생긴 건 길고양이 같은 게 아니었다. 질투와 시기, 원망으로 가득 차 불과해진 얼굴의 동현만큼 못생긴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듯했다.

집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동현은 이사날까지 꼭 한 달 남은 자신의 월셋집을 떠올렸다. 집주인은 주변 다세대주택들을 모두 헐어 병원 건물과 주차타워를 만들 거라고 통보해왔다. 동현은 일대 건물이 모두 집주인 소유라는 사실과 집주인 아들이 의사라는 사실을 고작 보름 전에 알게 됐다. 완전한 타인의 일이었으나 그 타인의 일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할 사람은 동현뿐만이 아니었다. 동현은 떠밀리듯 거리로 나왔다. 더 좁고 더 낮은 길을 찾아 걸었다.

“동서남북, 어느 쪽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크게 하품을 하며 벽에 붙은 지도를 가리켰다. 인근 구역이 납작하게 압축된 평면도를 동현은 골똘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집이 많으니 하나쯤은 나를 위한 집도 있지 않을까. 동현은 망설이다 남향집,이라고 답했다. 가능하면 남향집으로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중개업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말했다.

“이 동네 처음 와봐요? 여긴 동서남북 각각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요. 집 구할 돈이 충분하다 그러면 남쪽의 신축 아파트 단지. 집 구할 돈이 빠듯하다 싶으면 서쪽 구옥들. 보증금만 간신히 있다, 이걸 동쪽 원룸촌. 손에 쥘 게 동전밖에 없다, 요건 북쪽 판자촌. 예산에 따라 구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보니 지도에 X 자처럼 구획선이 그어져 있었다. 지도 남쪽에는 큼직큼직한 사각형에 번지수가 여유롭게 쓰여 있었으나 북쪽에는 구분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도형들이 빼곡했다. 번지수를 나타내는 숫자들 역시 어지러이 겹쳐 있어 읽기 힘들었다. 동현의 시선이 지도 북쪽에 오래 머물렀다.

동현은 중개업자와 함께 높은 지대의 집들을 둘러보았다. 동현의 예산에 가까울수록 집에 스미는 빛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네 번째로 본 집은 집 안에 묵직하게 고인 습기와 어둠이 발에 차일 만큼 진득해져 있었다. 언덕 꼭대기 집인데도 빛 한 줌 고이지 못할 만큼 구조가 기이했다. 몇 집 더 가보죠. 땅딸막한 키의 중개업자가 지친 기색도 없이 골목과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젊었을 때 고생 술하게 했어요. 북쪽에서 시작해 서쪽, 남쪽으로 이사하는 데 이십년이 꼬박 걸렸지. 북쪽 집들이 걸으론 불품없어 보여도 이 짝 물고 돈 모으기에 이만한 데가 없어요. 손에 쥘 게 동전밖에 없다, 그걸 결국 주먹 불끈 쥐고 산단 얘기잖아요? 젊은 사람이니까 좀만 열심히 살면 남쪽까지 금방이에요, 금방.”



격려해주는 말이었으나 동현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다.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동현이 하고픈 말을 삼켰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외국어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오전 7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해 잔업에 야근까지 빠짐없이 임하고, 퇴근한 뒤에는 부업 삼아 외주 받은 일을 두세 시간씩 더했다. 그뿐인가,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인은커녕 친구 한 번 못 만나고 살았다. 입사한 이래로 꼬박 5년이 그런 식이었다. 동현은 자신이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게 고작 동전 몇 개일 뿐이라면 허공에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동현에게 있어 집은 늘 타인의 것이었다. 자취를 시작한 스물두 살 때부터 지금까지 동현은 늘 타인의 집을 떠돌며 살았다. 벽지와 전등, 화장실 타일까지 타인의 취향이 밀도 높게 채워진 공간이었다. 뭔가를 고치거나 떼어낼 때도 타인의 허락이 우선이었고 머물거나 떠나는 일정 역시 동현이 정할 수 없었다. 이사를 거듭할수록 동현이 머무는 곳은 바닥이 좁아지고 벽이 얇아졌다. 열심히 살수록 더 빠른 속도로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만 같았다.

벌써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동현은 내일 다시 집을 둘러보겠다고 말했다. 서둘러 계약하지 않으면 가격대 좋은 집은 남들이 다 채가요. 중개업자는 몇 번이나 으름장을 놓은 뒤 돌아갔다. 가파른 언덕길을 타고 한참 내려가자 아까 지나친 편의점이 나왔다. 맥주를 한 캔 마실까. 4캔에 만원이니까 그걸 4일에 나눠 마시면 숨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려던 동현이 그 자리에 멈췄다. 편의점 뒤편으로 죽 늘어선 아파트와 마주친 탓이었다. 높고 곧은 건물들이 창문마다 노랗고 하얀빛을 내뿜고 있었다. 저기엔 철판을 용접해 만든 단단한 문틀에 귀퉁이가 딱 맞는 현관문이 달려 있겠지. 수압이 일정하고 소음도 적고 창문 앞은 틀림없이 환하겠지. 동현은 한 치의 뒤틀림도 일그러짐도 없는 사각형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곳은 동현이 방금 지나온 곳과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다. 적어도 동현에게는 아주 멀게만 느껴졌다.

야옹. 작은 울음소리에 동현이 옆을 돌아보았다. 편의점 에어컨 실외기와 나란한 위치에 종이상자가 놓여 있었다. 동그랗고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상자 속에 얼굴이 넓적한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여유롭게 앞발을 핥다 말고 야옹, 하고 울었다. 상자 바닥에 깔린 도톰한 담요가 아늑해 보였다. 동현은 고양이와 고양이를 감싼 사각형 집을 번갈아 보았다. “너도 집이 있구나.” 동현이 고양이를 향해 중얼거렸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도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그저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너도, 너에게도 네게 꼭 맞는 집이 있구나. 해가 완전히 사라진 골목 끝에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길고 깊은 밤이었다.



안보윤 | 1981년 인천 출신. 2005년 장편소설 <악어떼가 나왔다>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으며 등단. 자음과모음문학상 수상. 소설집 <비교적 안녕한 당신의 하루> <소년7의 고백>, 장편소설 <오즈의 닥터> <사소한 문제들> <우선멈춤> <모르는 척> <밤의 행방>, 중편소설 <알마의 숲>이 있다.

박물관, 미술관과 첨단기술이 만났을 때



스마트하게 변신한 송암미술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이 곧 문을 연다. 송암미술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이 문화관광체육부의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 이 박물관과 미술관은 서로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선한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인 송암미술관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기반의 맞춤형 스마트 북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형화된 기존 온라인 전시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감성적 요소를 결합한 인문학 융합 콘텐츠를 선보인다. 여기에 모바일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버전의 가상현실 전시 공간도 구축해 코로나19로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세계 각국

의 외국인 관람객을 맞이할 방침이다.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전시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해설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주요 전시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해 스마트 전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화역사박물관은 역사 기록화 ‘강화행렬도’에 첨단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인터랙티브 체험형 공간으로 구축한다. 이 작품은 1849년 조선 시대 25대 왕인 철종의 재위를 모시기 위해 강화로 향하는 행렬을 그린 것으로, 현재 북한의 조선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를 실감형 콘텐츠로 새롭게 제작해 관람객은 마치 행렬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통해 우리 시의 박물관, 미술관이 더 많은 관람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기대한다.



강화역사박물관 전경

4 Culture Calendar

※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관람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 관람 전 문의처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전시

화교들의 항일운동 - 1943년 인천, 일동회

인천시립박물관 1층 갤러리 한나루
5월 15일까지
☎ 032-440-6759



위신재, 권위와 신분의 상징

5월 29일까지
검단산사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 032-440-6790



그리움...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

5월 15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032-440-6759



민보라 개인전 <사이의 지금>

4월 5일~5월 27일
갤러리 어나더레벨 송도점
☎ 032-832-1127



이달의 공연·박람회

02 토

미니특공대: 애니멀트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2일~3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6만 원, S석 5만 원
☎ 1566-6551



03 일

정예원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4월 3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06 수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백년의 비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월 6일~8일
오후 7시 30분
4월 9일~10일 오후 3시
전 석 2만 원
☎ 1588-2341



08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1회 정기연주회 <뉴 골든 에이지4>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8일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000원
☎ 1588-2341



09 토

박소현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4월 9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2만 원
☎ 032-289-4275



12 화

제23회 인천장로 성가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12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무료
☎ 010-5385-1698

13 수

장희진 비올라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4월 13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15 금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 <붉은낙엽>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월 15일
오후 7시 30분
4월 16일~17일
오후 3시
전 석 2만 원
☎ 1588-2341



16 토

토요스테이지 <슈트라우스 스트레스>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4월 16일 오후 3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032-453-7700



17 일

2022 주현미 콘서트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17일
오후 2시, 6시
R석 11만 원,
S석 9만 9,000원,
A석 8만 8,000원
☎ 1544-7543



건반 위의 바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4월 17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0 수

2022 커피콘서트Ⅱ 피아니스트 안인모 <클래식이 알고 싶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월 20일 오후 2시
전 석 1만 2,000원
☎ 1588-23411



마스터피스 콘서트

3월 19일 오후 6시
전 석 2만 원
☎ 032-434-7333



21 목

청년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4월 21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 032-453-7700



22 금

뮤지컬 <레베카>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22일
오후 7시 30분
4월 23일
오후 2시, 7시
4월 24일 오후 2시
VIP석 15만 원,
R석 13만 원, S석 9만 원
☎ 1588-2341



뮤라벨 콘서트 in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월 22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3만 원
☎ 070-4048-7897

29 금

Facciamo Insieme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월 29일 오후 7시
전 석 2만 원
☎ 010-2315-4434



○ IMAGE NEWS ○

미세먼지 없는 인천시 만들기



01

중구·동구·계양구, 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반갑지 않다고요?
우리 시는 중구, 동구, 계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선정하고 소매를 걸어붙였습니다.

02

미세먼지도 집중관리가 되나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공기도 나쁘다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

03

미세먼지, 썩 물러가라~

우리 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을 진행합니다.



04

매일 깨끗하게 미세먼지, 영원히 안녕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
소형 분진흡입차 1대와 살수차 1대를 투입해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 인천 수돗물이 ‘인천하늘수’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시민 투표로
선정한 새 이름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유아, 청소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33명의 산림 교육 전문가가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숲길 곳곳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올해 5월부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열 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다섯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공모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산후조리원 다섯 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 우리 시는 친환경(GAP 인증) 쌀을 직접 구매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 학년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역 내 총 952개교 약 35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맛있는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 시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1,942개소에 소독비를 연 5회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 중 발생하는
마스크 훼손에 대비해 어린이집 비치용으로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용
마스크 구입비(1인당 10매)를 지원합니다.



깨끗한 인천 수돗물, 그 이름은 ‘인천하늘수’



인천 수돗물이 ‘인천하늘수’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우리 시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인천아뜰 잔디마당에서 ‘인천하늘수’ 브랜드 출범을 선포했다. 시민 투표로 선정한 인천하늘수는 ‘세계적 국제공향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B는 ‘하’에서 ‘수’까지 이어지며 흐르는 글씨체를 통해 ‘맑게 흐르는 물’을 의미하며, 물의 유입·확장·분산·순환이라는 과정을 ‘水(물 수)’자를 활용한 역동적인 심벌로 표현했다. 지난 3월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선정했다. 이와 함께 4월 17일까지 ‘사업평가단’과 ‘서포터즈’를 모집, 시민과 함께 수돗물 관련 시설 견학·교육·홍보 등을 연중 펼

친다. 지원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스마트 인프라 사업, 워터케어 서비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등을 통해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9월엔 ISO22000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ISO22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다.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보이지 않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완충저류시설, 도시와 도로의 오염원 저감사업 등 도시 물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의 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506

전국 최초 ‘공공형 산후조리원’ 10곳으로 확대, 행복한 임산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올 5월부터 열 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다섯 곳을 운영한 데 이어 최근 공모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산후조리원 다섯 곳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우리 시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시설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해 감염 예방과 안전 관리 장비 확충은 물론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우리 시의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기간은 3년으로 출산 가정 육아 지원 및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퇴실 산모의 산후우울증 극복 및 영아 성장 발달 등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내 감염 예방과 안전 등을 위한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는다. 또 우리 시의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부모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상시 운영, 모자동실 신생아 비율 60~80% 유지, 인천시 출산정책사업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의 시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유아~노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 눈길



우리 시는 3월 중순부터 유아, 청소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림 교육 프로그램은 숲 해설 교육과 유아 숲 체험 교육으로 운영되며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33명의 산림 교육 전문가가 지역 내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숲길 등에서 진행한다. 숲 해설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 유아 숲 체험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숲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수업 교구를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9만여 명이 참여했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문의 시 녹지정책과 032-440-3678

산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구분	숲 해설 체험	유아 숲 체험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53	032-440-5854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17	-
중구(도시공원과)	032-760-7779	032-760-7779
동구(도시경관과)	-	032-770-6205
미추홀구(공원녹지과)	-	032-880-4503
연수구(공원녹지과)	-	032-749-8713
남동구(공원녹지과)	-	032-453-2874
부평구(공원녹지과)	032-509-8824	-
서구(공원녹지과)	-	032-560-4796
강화군(정원관리사업소)	032-932-5432	032-932-5432

all ways
INCHEON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 친수·창작 공간 들어서



인천내항 8부두 곡물창고 전경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 시행자가 인천항만공사로 지정되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8부두 항만재생은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함께 인천내항과 주변 지역 재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렸다. 1부두와 8부두 28만 6,395㎡와 주변 지역 16만 7,000㎡ 등 모두 45만 3,000㎡를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8부두가 2019년까지, 1부두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워터프런트 산책로와 공원 등의 친수 공간, 공공 문화시설, 청년창업 및 일자리를 위한 창작 공간이 들어선다. 이에 앞서 우리 시는 인천내항 8부두의 폐곡물 창고(중구 북성동 4-161 외 4필지)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 관광시설 상상플랫폼을 조성해 오는 5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문의 시 재생콘텐츠과 032-458-7323

인천시 내 모든 어린이집에 소독비·마스크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소독비,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1,942개소에 소독비를 연 5회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 중 발생하는 마스크 훼손에 대비해 어린이집 비치용으로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용 마스크 구입비(1인당 10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존식 보관 의무'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431개소에 보존식 냉동고와 보존 용기 구입비도 지원한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032-440-2898

인천 모든 학교 35만 명에게 '친환경 쌀'로 지은 '무상급식'



우리 시는 친환경(GAP 인증) 쌀을 직접 구매해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952개교 약 35만 명의 학생이 대상이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생산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하고 친환경 쌀이 소진될 경우에는 GAP 인증 쌀을 공급해 학생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각 학교로 공급될 쌀에 대해 월 1회 이상 잔류 농약은 물론 단백질, 수분, 미질 분석 등 검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쌀이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문의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7

인천시-항만공사-테크노파크, 스마트 항만 혁신 스타트업 발굴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등이 스마트 항만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우리 시와 2개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수립, 인천항만공사 보유 인프라 실증지원 지원, 실증브릿지 사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다. 이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우리나라 1호 스타트업 파크인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실증브릿지 사업 프로그램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힘을 모으게 된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앞으로 인천항만공사 외에도 셀트리온, 한림제약,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굵직한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올해 스타트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IFEZ 스마트시티과 032-453-7472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COUNCIL NEWS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임기 마지막 임시회 열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18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임기 마지막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18년 7월 개원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 질문,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66개 안건이 처리됐다. 또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어린이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등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친 4개 특별위원회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채택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다음 회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원구성과 개원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 성금 전달식 가져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강원 지역 주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 시의회 관계자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강원 등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빠른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성금은 중앙회를 통해 전국재난구호협회로 일괄 지원되며,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원모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큰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 지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 진화로 고생하는 소방대원과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용, 윤형빈, 요요미, 김채빈' 인천광역시의회 첫 홍보대사



인천광역시의회가 다양한 의회 활동과 의정 소식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의회 개원 이래 첫 홍보대사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장용(계양구), 개그맨 윤형빈(연수구), 가수 요요미(중구), 가수 김채빈(동구) 등 4명을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모두 인천시민으로 임기 2년 동안 유튜브 영상 등 시의회 관련 각종 홍보 활동과 의회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민을 잇는 가교로서 시민이 알아야 할 의정 소식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2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혁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 구현을 위해 홍보대사 운영을 통한 대시민 의정 홍보 활성화를 약속했다.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광역시의회의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032-440-6135(의회사무처)



〈인천앓의회〉 보기



인천의회 영상 보기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이달의 드로잉 월미산

박영조 작가



인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담은 서양화가다. 개인전을 18회 개최했으며 <청년작가 31인전>, <인천여류작가전>, <인천여성서양화회전>, <인천강화거리전>, <현대미술초대전>, <중등교사미술전> 등에 참여했다. 또 2004·2009·2011·2013·2014년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와 2013년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 <일본군 위안부 기억을 넘어 평화를 품다>, 2016년 인천국제아트페어에도 함께했다. 현재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이사장, 인천미술협회 감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민족미술인협회, 서울여류화가회, 인천여성서양화회에 소속되어 있다.



박영조 작가의 채색 가이드

월미산(月尾山)은 한국전쟁의 변곡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격전지로 꼽힌다. 당시 산속에 숨어 있지 못을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해 연합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이 산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 그렇게 월미산은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른다. 이 긴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우뚝 서 있는 낙락장송(落落長松). 그 소나무를 보자니 코끝이 시리다. 검푸른 바다는 흐르고 저 멀리 여객기는 뜨고 내려는데 나무에 기대어 선 사람은 말이 없다.

> 2022년 3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태준 부평구 경원대로



김형숙 부평구 화랑로



진상혜 서구 비치니스로



노연우 연수구 원인제로



김선 고양시 일산서구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2022@naver.com

기간 : 2022년 4월 20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

치매 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에서
모두 모여 즐거운 영화를 감상하세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상영 장소: 인천 미림극장(인천시 동구 화도진로 31)
상영 일자: 매월 셋째 주 금요일(12월까지 월 1회 정기 운영)
참여 대상: 치매 환자 및 가족, 치매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관람료: 무료
상영작 및 시간표: 인천광역시치매센터 홈페이지
(incheon.nid.or.kr)
접수: 개인 및 단체 접수
문의: ㉠ 가치함께 시네마 032-472-2028

2

구직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체계적 교육으로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단체(아동)급식조리사 과정

교육 기간: 4월 18일~6월 23일, 월~금요일 오후 2~6시
접수 기간: 3월 28일~4월 8일
교육 인원: 20명

경리회계사무원 과정

교육 기간: 5월 2일~7월 12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30분
접수 기간: 4월 11일~22일
교육 인원: 20명
교육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청 서류: 신청서(자기소개서, 구직신청서 등 포함),
신분증(사본), 사진(반명함) 1매 * 신청 서식은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www.incheon.go.kr/www)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womensaeil@hanmail.net)
자부담: 10만 원
(수료 시 5만 원 환급, 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5만 원 환급)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내 공지사항 확인
문의: ㉠ 032-440-6520(조리 6547, 회계 6529)

3

20세, 어른으로의 성장과 출발을 응원합니다

연수문화원에서 전통 성년식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 일시: 5월 14일 오후 5시
행사 장소: 원인재(인천문화재단 제5호)
참가 대상: 올해 성년자 2003년생 남·여 각 4명(총 8명)
참가 비용: 무료
모집 기간: 3월 7일부터 선착순 마감
모집 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문의: ㉠ 연수문화원 전통문화팀 032-821-6229



전통 성년식 참여 신청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슬기로운 경제생활’
재무 클리닉 무료로 받으세요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일대일 대면 상담을 지원합니다.

참여 대상: 인천시민, 인천 소재 소상공인 및 근로자
상담 내용: 소비지출 및 예산, 자산 및 부채 관리, 저축 계획 등
재무 상담과 설계
상담 횟수: 최대 3회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972

5

시민 품으로 돌아온 문학터널

문학터널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무료 전환합니다.



6

연수문화재단의 즐거운 공연에 초대합니다

온·오프라인 입맛에 맞게 선택하세요.

금요예술무대 #플레이연수 '네네네'

공연 일시: 4월 29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공연 장소: 연수아트홀(연수구청 본관 지하 1층)
공연 단체: 상상마루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문의: ㉠ 연수문화재단 시민문화팀 070-4466-1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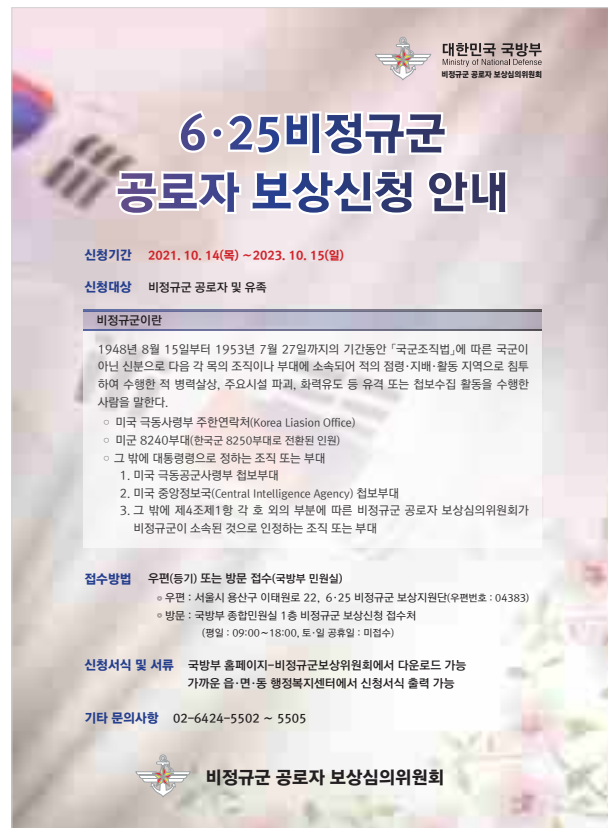
연수문화재단 공식 카카오톡 채널 오픈

제공 콘텐츠: 연수문화재단 문화예술 행사, 교육, 공모 소식
안내 및 실시간 문의
이용 방법: 카카오톡에서 연수문화재단 검색하고 친구 추가
문의: ㉠ 연수문화재단 기획경영팀 070-4169-1667

연수문화재단 카카오톡
바로가기

7

한국전쟁에 참여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찾습니다



비정규근 근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숨은 근로자의 보상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10월 15일까지
접수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국방부 민원실)
신청 서식 및 서류
- 국방부 홈페이지 내 비정규군보상위원회에서 다운로드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
문의: ① 국방부 02-6424-5502~5505

8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공연·전시 보러오세요

4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립니다.

제6회 인가조각회 정기전

인가조각회 정기전

일시: 4월 6일~14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рина무(2층)

문의: ① 032-899-1516

초현실 세계

최태웅 개인전

일시: 4월 6일~14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다솜(2층)

문의: ① 032-899-1516

초월 - 빛의 정원

최옥실 개인전

일시: 4월 20일~28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나무(2층)

문의: ① 032-899-1516

프로파간다 룸: 세상을 위해 숨을 참아라

김정모 개인전

일시: 4월 20일~28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다솜(2층)

문의: ① 032-899-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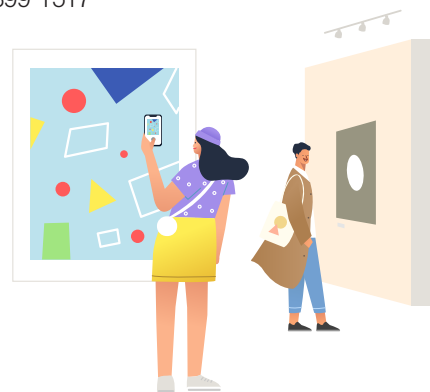
Dream of spring with Beauty Box

뷰티박스 공연

일시: 4월 14일 오후 7시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미추홀

문의: ① 032-899-1517



2022년 3월 옛 일본58은행 전경

130년 흘렀어도
그 모습, 그대로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인천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64(중앙로 2가) 구 ‘일본제58은행 인천지점(이하 일본58은행)’은 프랑스풍 벽돌 조 2층 건물이다. 이 건물로 들어가려면 약 1m 높이의 석조 기단을 올라가야 한다. 홀과 화장실이 있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가파르다. 2층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3개의 방이 있다. 사무실, 지점장실, 문서고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다. 정면 2층은 목조 발코니가 설치돼 있으며, 돌출 창과 함께 장식적이 돋보인다. 창문과 벽체, 기둥 역시 처음 건축했을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어 매우 고풍스럽게 다가온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9호인 이 건물은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은행이었다. 일본 58은행을 비롯해 개항기 은행은 지금의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이 주 업무가 아닌 조선 경제를 수탈하는 침범 역할을 했다.

오사카(大阪)에 본점을 두고 1892년 7월 개점한 이 은행의 주 업무는 인천전환국이 주도하는 신화폐와 구화폐의 교환이었다. 나중에 제130은행과 제3은행 등 군소 은행과 합병해 야스다(安田)은행으로 개편한 이 은행은 광복 이후인 1946년 4월 1일엔 이름을 ‘조흥은행 인천지점’으로 바꾼 뒤 10여 년간 은행 업무를 본다. 조흥은행이 1958년 신사옥을 지어 이전하면서 이 건물은 다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기교육신보사 간판을 달았으며, 지금은 중구외식업지부가 사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인천에 있던 은행들에 번호가 붙은 것은 일본이 1872년 ‘국립은행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조례에 따라 인가한 허가 번호를 넣어 ‘제○은행’ 하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가장 먼저 설립한 은행을 제1은행으로, 58번째 설립한 은행을 제58은행으로 붙인 것이다. 국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국가가 운영한 것은 아니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민간 업자들이 운영하기도 했다.

인천 지명

바다를 향한 터진 개, 신포동

이곳에 동네가 들어선 건 인천항 개항 이후다. 구한말 다소면 선창리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부내면이 만들어질 때 ‘새로 번창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창동^{新昌洞}’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30년대 들어 신창동은 다시 한번 이름이 바뀌는데, ‘터진 개’를 한자로 바꾼 ‘개포동^{開浦洞}’이었고, 광복 이후 1946년에 비로소 신포동이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새롭게 발전하는 포구’라는 뜻에서 이름 지었다고 한다. 1977년에 신포동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시 조례 제1075호에 의해 근처에 위치한 사동^{沙洞}, 신생동^{新生洞}, 답동^{答洞}과 합해 새로운 신포동이 된 것이다.



1907년 신포동 © 조선일보사

신포동은 근대 개항 이후 최초로 도시화된 지역으로 개항기 역사의 태동지이자 근대사 유적지로 꼽힌다. 현재는 자유공원, 신포시장, 신포문화의거리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한 상업 중심 지역으로,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서 앞으로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시안게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제17회 아시안게임 엠블럼



2007. 04. 20 2014년 제17회 아시안게임 유치

인천 소사

아시안게임은 1947년 인도의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위원이었던 손디가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국제회의에서 제의했고, 이듬해 8월 제14회 런던올림픽 기간 중 한국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등 6개국 대표가 모여 결의했다. 이 회의에서 제1회 아시안게임은 1950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아시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열린 제17회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렸다.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했다. 1만 3,855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36개 종목에서 총 439개 금메달을 놓고 겨뤘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전 종목에 걸쳐 선수 831명 등 총 1,068명의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그 결과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를 수확해 5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그때, 4월의 인천은...

1882. 04. 06	화도진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885. 04. 05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도착
1888. 04. 30	인천공립병원 설립
1903. 04. 21	하와이 이민 61명, 인천항 출발
1910. 04. 29	인천관측소에서 헬리헬성 관측
1919. 04. 01	월미도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만세 고창
1935. 04. 09	인천항 건설 계획 확정
1954. 04. 24	인하공과대학 개교
1971. 04. 07	경인전철 착공식 거행
1972. 04. 17	경인에너지 준공



그리운 내 고향

사연 김용덕(미국 페어팩스)

미국 페어팩스Fairfax에 사는 애독자입니다. 매달 바다 건너 도착하는 <굿모닝인천>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옛 추억에 잠겨 한참 동안 시간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1950년대,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반세기도 넘는 옛날 일이라 많은 기억이 사라졌지만 그때 부르던 노래만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인천을 떠나는 열차는 새벽의 기적을 울리며, 한강을 달리는 열차는 희망과 용기로 꽉 찼네. 깨진 칸, 무너진 칸에서 연착에 연착을 거듭해도 촛불을 켜가며 책 보는 장하다 경인선 용사야!”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 시절 그때가 참으로 그리워집니다. 매일 그렇게 통학하던 기억이 소리로 남아 있다면 맛과 향으로, 촉감으로 남아 있는 기억도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공화춘, 중화루, 청관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인가요? 그 시절 귀하게 먹던 음식들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곤 합니다. 배다리사거리, 쇠뿔고깃길, 싸릿재 곳곳을 걷던 발걸음이며 한여름 월미도해수욕장에 첨벙 뛰어들던 일도 생생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 어언 60여 년이 지났지만 제 기억 속 인천은 마치 어제 일처럼 가깝기만 합니다. 꼭 다시 찾아가길, 곧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기분 좋은 추억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내 소중한 인천이여.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 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에네켄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월미도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멕시코 이민자 디오라마

피리 부는 내시, 도망 중인 신부, 옥니박이 박수무당, 가난한 황족과 굶주린 제대 군인, 노루 피 냄새의 소녀, 도둑놈. 김영하의 장편소설 <검은 꽃>은 제물포항에 모여든 인간 군상의 묘사로 시작한다. 그들은 멕시코로 향하는 영국 화물선 ‘일포드’호에 오르려는 사람들이다. ‘높은 보수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멕시코 이민자들은 현지에 도착한 뒤 비로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민자들을 기다린 건 선인장의 날카로운 가시와 살을 새카맣게 태우는 유카탄반도의 띄약별, 농장주의 채찍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09년. 중노동에 시달린 4년간의 노예 계약이 끝났지만 그들에겐 돌아갈 조국도, 뱃삿도 없었다. 이민자들은 결국 현지에 눌러앉아 생존을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검은 꽃>은 1905년 단 한 차례 있었던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멕시코 이민은 하와이 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민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1905년 국제 이민 브로커 마이어스^{John G. Meyers}는 높은 보수와 편의 제공을 미끼로 멕시코로 갈 조선인을 모집한다. 서구 열강과 일제의 침탈로 저물어가던 대한제국의 불쌍



1900년대 초 한글학교 앞에 모인 멕시코 거주 한인들 ©한국이민사박물관

한 백성들은 거짓 광고에 현혹돼 일포드호에 오른다. 전국 18개 지방에서 모집한 이민자 1,000여 명 중 인천 출신은 225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1905년 4월 제물포항을 출발한 일포드호는 한 달여 만에 살리나크루즈항에 도착한다. 적어도 조선에서의 삶보다는 나을 것이라 기대했던 멕시코 이민자들의 꿈은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면서 산산이 부서진다. 도착 즉시 이민자들은 유카탄주의 20여 개 에네켄(애니깽, 어저귀라고도 했다) 농장에 흩어져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린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멕시코 이민자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쿠바로 재이주를 하거나 멕시코혁명에 휩쓸리며 이역만리에서 한 많은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점은 멕시코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색깔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미국 대한민국민회의 도움으로 1909년 북미주 지방총회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한 한인들은 이후 멕시코 각지로 흩어져 지방회를 설립했다. 지방회는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메리다에 송무학교를 세워 군사교육을 시켰으며 일신학교, 해동학교를 세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1921년 멕시코 한인 중 290여 명은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쿠바에서도 한인들은 교육에 힘을 기울여 흥민학교, 민성국어학교, 진성국어학교 등을 세워 한글을 가르쳤다. 1932년엔 청년학원을 설립해 한국사 강연회와 독서, 토론회를 열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그렇게 6세대까지 이어온 멕시코와 쿠바 한인들은 지금 ‘멕시코한인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오고 있다. 4월은 멕시코 이민 117주년이 되는 달이다. 외롭고 고단했던 삶이었지만 지금의 멕시코 이민자 후세에게만큼은 4월의 봄 하늘처럼 화사한 미래만 펼쳐지길 소망한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팝콘 터지듯 툭 툭 겨우내 잠자던 연둣빛 새순이
연분홍 벚꽃잎이 되어 하나둘 터져 나옵니다.

저 꽃잎 하나에 봄의 생명력이

저 꽃잎 하나에 봄의 설렘이

저 꽃잎 하나에
새 봄을 맞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갯곶돈대,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엔
머잖아 벚꽃잎이 함박눈처럼 흩날릴 것입니다.

을봄엔 꽃길만,
아니
‘벚꽃 길’만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